



대한양계협회소식



시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 제출 살처분 범위 줄이되, 방역활동 강화 주장

본회는 살처분 범위 축소를 주요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을 지난 16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 의견에 따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만을 살처분하되, 오염지역(500미터 이내)내에서는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개, 고양이, 돼지 등 포함)을 살처분하고 정부주관하에 오염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검역원장이 기존에 발생지 반경 3km내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확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던 것을 500m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데는 2003·2006년에 걸쳐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활동 당시 광범위한 방역활동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해서 범위를 줄이되 축소된 범위내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확산을 예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올해 국내 7차 발생지

에서 500m내외의 살처분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퇴치가 가능했던 점을 정부가 반영해 주길 요구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정의견제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조정 요청

본회에서는 위생방역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된 3종 가축전염병 신설과 관련하여 2종가축전염병에서 3종으로의 하향조정과 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재완화를 요청했다.

단, 전파 위험성이 높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3종가축전염병에는 속하지만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추가했다.

이번 수정의견 제출을 본회에서는 닭노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에프낭병 등의 질병항목들에 대해 농장에서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게 되었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업체 선정, 9월부터 홍보시작**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자조금 거출 추진현황 및 자조금추진 세부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20일 현재 1억6천여만원의 자조금이 거출된 가운데 부화장과 사료회사에서의 동참이 자조금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자조금 거출중 20%정도에 머물고 있는 산란계 농장으로부터의 참여율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날 자조금 홍보업체로 TV홍보는 토마토가 라디오는 JBS가 각각 선정되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산란계 자조금 활성화위해 2천만원 기탁**

산란계사료 점유율 1위인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가 산란계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 했다.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대표 장원철)은 지



난 16일 본회를 방문하여 산란계 자조금 전달식을 가지며 2천만원을 기탁했다. 장원철 대표는 이날 자조금 전달식 자리에서 “FTA, 과잉수출 등 양계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자조금이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산란계 자조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자조금이 활성화 되어 계란소비홍보 활동에 소중히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장원철 대표는 지난 4월 출정식을 가진 이후 축산업의 동반자로서 ‘진정한 한국축산의 희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있었다.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동참으로 실천에 나서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산란계자조금 1천만원 기탁**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지난 20일

본회를 방문하여 산란계 자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최준구 회장은 김선웅 부회장, 퓨리나코리아 배민황 이사·안형진 전무와 함께한 자리에서 산란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사료업계의 동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배민황 이사는 '예전 방송매체의 부정적인 방송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성된 자조금을 통해 울바를 소비촉진 홍보가 속히 진행되길 전했다.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개최 불황극복 방안에 초점



본회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가 지난 7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양계산업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자조금 사업 활성화와 사육수수 조절 노력 등으로 조기에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이견이 팽배해 있는 육계 병아리 가격 결정건과 관련해서는 종계와 육계업계의 예민한 사항인 만큼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육계업계에서 제시되었으나 기존의 병아리 가격 조정위원회가 존치하는 만큼

이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모색을 이뤄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불황의 현실을 정부 등에 알려 불황극복 방안을 도출해 내는 한편 계열화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 감축방안을 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난가조절위원회 추석대목 대비 논의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난가조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상도 지역 난가 인상건과 추석대비 난가조절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경상도 지역 난가인상은 하계 휴가철 특성상 특정지역의 계란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한편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현재 인상되는 사료값과 어려운 농장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좋은 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위원들이 지역간 정보교류와 계란유통상인과의 의견조율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육계·종계업대표자협의회 육계산업 현안 논의

지난 22일 본회회의실에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종계 및 육계업계 대표자간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종계분과위원으로 이연중 분과위원장, 이광초 위원, 윤정로 위원, 함경섭 위원과 육계분과위원으로 장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근 위원, 남상길 위원, 이상정 위원 등 참석한 가운데 육용 종계 사육동향 및 향후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원종계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방안 논의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가 개최되었다.

'07년 7월 육용종계입식수수는 575,630수로 전월대비 23.3%증가했고, 7월에 입식된 종계가 생산가담을 시작하는 '08년 2월 생산잠재력은 50,750천수로 전년동월대비 21.1%가 증가될 것

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05년도 육용원종계 자육쿼터제(94,000수)파기 이후 '07년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물량이 증가추세로 '07년도 상반기 육용원종계 수입물량은 82,533수로 전년 상반기(62,000수) 대비 33.1%가 증가했다. 이에따른 향후 수급안 정대책으로 원종계의 적정수수물량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적기 도태 및 환우금지로 종계의 감축을 통한 자육수급조절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자조금의 시급한 정착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적정사육기준 논의



지난 22일 본회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07년 8월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45,771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보고, '08년 2월 생산잠재력은 50,297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할 것으로 예년에 비해 과잉 생산될 것으로 보고 하였다.

농림부 고시에 의거 '가축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육계의 출하체중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어 재조정(안)에 대해 농림부에서 의견조회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또한 무창계사의 경우에도 자동 환기시스템 무창계사와 반자동식 환기 시스템 무창계사의 사육환경에 따라 소요면적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대두되면서 '육계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출하중량 대비 수당 면적에 대해 보고 했다.

지부소식

포천채란지부

산정호수에서 하계 야유회 개최



포천채란지부(지부장 김인배)는 지난 7일 산정호수 명성가든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김인배 지부장을 비롯한 오세을 이사,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포천시청 농축산과 김광준 과장, 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 영북농협 이상용 조합장, 영북축산과 홍순식 계장, 정우식품 이한빈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인배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채란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부가 단결하여 극복해 나가자”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근심

걱정 덜어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양기원 포천조합장은 포천채란인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사업추진을 밝혀 추후 포천지역 계란브랜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연채란지부

연천에서 하계야유회 개최



동양연채란지부(지부장 안영기)는 지난 8월 9일 연천소재 동막리 계곡산장에서 회원 및 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양주·연천지부 하계야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안영기 지부장을 비롯해 양계협회 오세을 이사, 송복근 이사, 한국양계조합 오정길 조합장, 경기도2청사 김영수 주무관, 동두천시청 농업경제과 이선재 과장, 정두환 계장, 연천군청 농림축산과 전충언 과장, 장락천 계장, 양계협회 조종수 부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안영기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축산 관련 산업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동두천·양주·연천지역 채란양계인들의 결집을 통한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을 밝히며, 우리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촉진홍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산란계자조금 모금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채란지부 남한산성에서 단합대회 개최



광주채란지부(지부장 이영재)에서는 회원의 단합된 분위기 조성 and 농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남한산성소재 불당리 상록가든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영재 지부장을 비롯한 본회 최준구 회장, 광주축산업협동조합 전상호 조합장, 광주시 축정계 주선종 주사, 이천시 축산과, 오세을 이사, 정광면 이사, 다한영농조합 등 광주 지역의 양계 회원 및 관련인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영재 지부장은 “이 자리를 통해 광주채란인들이 결속력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되어 지역 양계발전과 크게는 국내 양계산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광주채란지부는 지난 8월 3일자로 산란계자조금 납입액보다 많은 6백6십만원을 납부하여 산란계자조금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7. 27 한·EU FTA 농업분야 2차 협상 결과 등 설명회
- 7. 30 2007년도 제 5회 본회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 7. 31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 8. 8 식품수요변화에 따른 농정패러다임의 재정립을 위한 워크샵
- 8. 14 광주채란지부 단합대회
- 8. 15 제 62주년 광복절 경축식
- 8. 16 8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8. 20 산란계자조금 관리위원회
- 8. 21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세미나
- 8. 22 종계 및 육계업계 대표자간 협의회
- 8. 22 8월 육계분과위원회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월간양계 독자분들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 닭에 대한 이야기, 정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피소트 등...
 분량 : A4용지 1.5매(10포인트)
 ※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